

1년 맞은 순창 경영실습 임대농장 실습·판매...새내기 청년농부 호응

비닐온실 9동 공실 없이 모두 임대 친환경 인증 고품질 농산물 생산 딸기 육묘장 5000만원 소득 올려

순창군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운영 1년차를 맞은 가운데 사업 참여 새내기 농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은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 영농이 처음인 청년 농업인들의 안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지난 2020년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금과면 매우리 일원에 조성됐다. 대규모 비닐온실 9동(총 1만6448㎡, 1동 기준 1827㎡)이 들어섰다.

비닐온실 9동은 공실 없이 모두 임대로 계약(2021~2023년)됐다. 젊은 농장주들은 이곳에 딸기 모종, 딸기, 방울토마토, 참 채소, 오이 등을 심었다. 향후 해당 작물 농장 경영을 위한 실습 목적이다.

딸기 육묘장 온실은 5000만원 이상의 판매 소득을 올렸고, 딸기가 재배 중인 3개 동에서는 현재 2화방이 수확 중이다. 오는 5월까지 개별소득 1억원을 목표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창군이 지난 2020년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금과면 매우리 일원에 조성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전경.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부로 구성된 9명의 입자 농부들은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시설농업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다. 이들은 농장 입차 후 탁월한 정보력과 열정으로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인까지 받으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 정확한 친환경 농산물 출하를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유통망도 구축했다. 광주공판장, 순창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4월에는 어린이 대상 딸기 수확 체험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경영실습 임대 농장 청년 농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지도 및 마케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기자 노트

상주감리자 퇴출 논란



박기섭
전북 취재본부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공사현장의 안전지킴이라 할 수 있는 상주감리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노동자 매몰사고와 경기 양주시 석재 채취장 붕괴로 인한 작업자 매몰사고 등 크고 작은 불의의 사고를 보면서 안전불감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러한 처사가 또 다른 사고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같은 곳을 밟고 있는 곳은 정읍 국립기상과학관 건립공사 현장. 이곳에 상주감리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발주청과의 불협화음으로 부당한 근무조건이 주어져 고통받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논란은 공사 발주청이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데서 시작했다.

A씨는 "상주감리라는 것은 공사기간동안 건축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기에 상시 근무해야 하는데 전체 공사기간 438일 중 공사 중지기간 180일을 빼고 근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발주청이 해고를 종용했고 이를 트집잡아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감독관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책무를 이행하려는 상주감리의 직무를 무시하는 것이며, 건설사행방에도 위태롭다며 법적 근거에 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상주감리자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소명하도록 한 후 벌점을 주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때, 상존하는 사고의 위험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공사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안전한 공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은 부실공사로 인한 '사후 약방민식' 처방에 그쳐서는 안된다.

/parkks@kwangju.co.kr

군산시 디지털 농업시대 MZ세대 농촌지도사 양성

군산시가 급변하고 있는 농업의 디지털화와 농촌지도사 세대교체에 대응하기 위해 MZ세대 농촌지도사 역량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디지털농업은 농식품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향상을 위해 모든 과정에 걸쳐 새롭고 앞선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젊은 농촌지도사의 영농기술 지도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한 현장 역량강화를 위해 35명 대상으로 작물별 재배관리, 병해충 문제해결과 현장 대응요령 등 자체 역량강화 9개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디지털 농촌지도사사업 전환을 위한 MZ세대 농촌지도사 위주로 농업현장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가능한 디지털농업 실무,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터 및 비대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디지털 영농기술 콘텐츠 제작(기초, 심화) 등 4개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도심 공원 확대 녹색 힐링도시 건설

민간특례사업 5곳에 공원 조성 1인당 공원면적 2배 가까이 늘어

익산시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에 달하는 도시숲 공원을 만든다.

익산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녹색 힐링도시 건설을 위해 도심 5곳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1인당 공원면적은 기존 6.8㎡에서 11.2㎡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익산지역 전체 공원조성면적도 기존 190만2000여㎡에서 313만7000여㎡로 1.7배 가량 확대된다.

지난해 가장 먼저 착공한 마동·수도산 공원은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은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해 오는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100% 매입 후 70%에 공원을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뒤 공원 내 훼손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번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55%에 달하는 1.6㎢ 규모의 면적에 도시숲이 조성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심 공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개선 정책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운곡습지 활용 '반딧불 탐사'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이 운곡마을 주민들과 함께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군은 올해 '반딧불이 탐사', '연못생태탐험', '운곡습지 자연의소리(풀벌레 약기연주)' 등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운곡습지는 겨울철새를 비롯해 830여종의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이런 가

치에 주목해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힐링여행지에 단골로 선정되고, 국제적으로도 '세계100대 관광지', '최우수 관광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개선, 국제여행사이트 연계, 동영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코로나19이후의 국제적 생태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2차 오투그란데 디아트 잔여세대 분양

남원시 왕정동에 주택홍보관

남원시 신정동 일원에 공급하는 '남원2차 오투그란데 디아트'의 잔여세대가 분양중이다.

단지(조감도)는 지하2층-지상15층으로 전용면적 59㎡ 66㎡, 84㎡A·B, 95㎡, 119㎡, 138㎡로 구성되며 총 226가구로 일부 잔여물량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중이다. 앞서 제일건설이 남원시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 시티'와 함께 나란히 지어져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브랜드 단지답게 편의시설도 특화시켰다. 초등학생을 위한 키즈 클라이밍, 중고등, 대학생을 위한 스터디카페, 어른들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시네마룸, 실내골프연습장, 멀티 피트니스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단지 내에 들어선다.

입지조건도 우수한 편이다. KTX남원역 역세권 단지로 외부 진출입시 노출빈도가 높고 단일 브랜드로 대규모로 공급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지역 일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지역과도 북남원IC, 24번 국도 등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고 서문로-남문로 확장, 신정대로 등 도심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공원들도 많다.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금암가족생태공원 등이 가까이 있고 근거리에 전통시장인 춘향골 공설시장이 있다

개발후에도 풍부하다. 남원시가 개발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지역과 남원관광지 RE-PLUS사업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으로 호재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홍보관은 남원시 왕정동 150-1번지에 마련돼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